쩐의 전쟁은 옛말? FA 시장 본격 개막…특징과 전망은

대어급 '부재'…이적 쉽지 않은 베테랑 대상자 다수

계약규모 줄어들 것 전망…선수-구단 치열한 눈치싸움

시즌 후 FA자격을 얻는 선수들. (왼쪽부터) 안치홍, 김선빈, 전준우, 오지환.

10월31일, '스토브리그의 꽃'이라 불리는 FA 시장이 막을 올린다. 이전에 비해 계약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선수-구단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0월31일 2019 FA 자격선수를 공시하며 본격적인 FA시장 레이스가 펼쳐진다. 이제부터 선수들의 신청이 이뤄지고 3일 뒤인 11월3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원소속구단 우선협상'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날부터 대상 선수들은 모든 구단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전과 달리 100억원대 매머드급 계약선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양의지(NC) 4년 125억원, 그 이전에도 김현수(LG) 4년 115억, 최형우(KIA) 4년 100억원 등 해마다 초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특A급으로 평가되는 선수가 없다.

안치홍-김선빈(이상 KIA), 전준우(롯데), 오지환(LG) 정도가 규모 있는 선수로 꼽히지만 대어급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2년전 KIA 우승을 이끈 김선빈-안치홍 키스톤 콤비는 이후 수치적인 기량저하가 보이고 특히 수비에서도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두 선수 모두 기존 2루수-유격수 역할이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경기에 나선 경우도 적지 않다.

풍부한 경험과 전체적으로 귀중한 내야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한 이름값을 자랑하지만 큰 규모의 계약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평가. 소속팀 KIA에 기대할 만한 유망주들이 대거 포진한 점, 외국인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점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전준우 역시 타격에서는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외야 수비불안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내년이면 한국나이로 35세가 되는 점도 장기계약에 부정적 전망을 안긴다. LG의 주전유격수 오지환의 경우도 기량면에서 타 구단들의 지갑을 열 정도로 군침 흘릴 자원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현장의 냉정한 평가와 달리 네 선수의 원소속팀에서는 이들이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점이 변수다. 확실한 대체자원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이별은 전력약화를 일으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팀 내에서 입지가 확실한 점도 어필요소다.

이지영(키움)과 김태군(NC)은 10개 구단 모두에게 귀중한 경험 풍부한 포수자원이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키움 측은 "이지영 포함 FA자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고 NC 역시 김태군 잔류를 위한 협상테이블을 차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롯데 등 포수자원이 부족한 팀이 적지 않은 데다 지난해 양의지가 불러일으킨 포수영입 효과,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영입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그 외 이성열·정우람·김태균(이상 한화), 유한준(KT), 김강민·나주환(이상 SK), 송은범·진해수(이상 LG), 오재원(두산), 오주원(키움) 등 베테랑자원들도 FA 자격 행사가 가능하다. 유한준, 김태균 등 FA 재취득 선수가 많은 것도 이번 시장 특징이다.

현실적으로 보상선수를 내주며 이들 베테랑 FA대상자를 영입할 팀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선수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객관적인 요소. 사인 앤드 트레이드 같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타 팀에 관심을 이끌기 어렵다.

그래도 원소속팀들은 원론적으로 이들 베테랑 자원들에 대해 "함께 가고 싶다"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 급격한 전력약화 우려에 인위적인 리빌딩에 대한 팬들의 부정적 시선이 더해지며 구단들은 이른바 냉정하고 매몰찬 이별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화의 경우 좋지 않은 팀 성적에도 주장으로 묵묵히 헌신한 이성열, 여전히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투수인 정우람, 팀의 상징과도 같은 김태균을 놓치기 쉽지 않다. 오재원은 소속팀 두산의 통합우승을 이끈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진해수, 송은범도 후반기 LG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유한준, 오주원 등은 나이가 무색하게 이번 시즌 성적으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류현진, 5년 1억달러 계약 원하면 다저스 떠날 것"

"최고의 한해 보낸 만큼 이번처럼 큰 돈 벌수 있는 기회 없어"

지난 2013년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류현진 역시 소속팀에 대한 애정이 크지만 그의 에이전트 보라스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거닉 기자는 "류현진은 LA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류현진이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만큼 이번처럼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성적은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고 29경기 선발 등판 중 10경기에서 무실점을 남겼다.

현지 언론에서는 류현진의 이적 가능성을 높게 보고 LA 에인절스, 텍사스 레인저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을 차기 행선지로 거론하고 있다.

류현진(32)의 1억달러 대박 계약은 현 소속팀 LA 다저스에선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MLB.com의 켄 거닉 다저스 담당 기자는 지난 10월30일(한국시간) 독자와 질의 응답 코너에서 '류현진이 LA에서 자신의 몸값을 책정했나'라는 질문에 "류현진이 5년 1억달러 이상의 계약을 원한다면 다저스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는 스캇 보라스"라며 "홈타운 디스카운트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홈타운 디스카운트는 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애정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쌀딩크' 박항서 베트남대표팀 감독, 아세안축구연맹 어워즈 감독상 후보 올라

'쌀딩크'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동남아시아 최고 지도자에게 주는 아세안축구연맹(AFF) 어워즈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지난 10월31일(한국시간) 베트남 언론 '베트남 플러스' 등에 따르면 박 감독은 2019 AFF 어워즈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2년마다 열리는 AFF 어워즈는 오는 11월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축구 사상 첫 준우승에 이어 9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첫 준결승에 진출했다.

올해 1월 열린 AFC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진출했고 최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는 2승1무로 태국에 골득실에 뒤진 G조 2위를 마크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97위를 기록 지난달보다 2계단 뛰어올랐다.